

韓,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제안... 탄소중립 노력 소개

제26차 당사국총회 개막

지구온도 상승 1.5℃ 이하 유지목표 197개국 대표단 2만5000명 참석 한정에 장관, 개막식 기조연설 예정

전 세계 기후변화에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 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해 11월 12일까지 열린다. 197개국 대표단, 기후 관련 시민단체, 기업인, 언론인 등 2만 5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정에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당사국회의에 참석한다.

올해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해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다. 파리협정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현지인들이 COP 기후 컨퍼런스 현수막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

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 세계 각국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참가국들은 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행동과 연대를 모색한다.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지만 지난해는 코

로나19로 연기돼 이번이 26번째다.

파리협정에서 각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점검해 새롭거나 개선된 목표를 내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시기여서 주목된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낮추려면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55% 줄여야 한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만

드는 탄소중립도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국이 제출한 NDC 안 수준으로는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낮추자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온실가스 배출 1위와 4위인 중국과 러시아는 2050년에 맞춘 새 NDC 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번 당사국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해 성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파리협정의 이행 기간이 시작되면서 당사국들은 세부 이행규칙 완성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협상 막바지까지 치열한 격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에 장관은 31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파리협정 이행의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번 당사국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채택할 것도 촉구한다.

한정에 장관은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기틀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알리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11월 1~2일 의장국인 영국 주재로 특별정상회의도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130여 개국 정상들이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피해가 큰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을 위한 기후기금 1000억달러 조성에 합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기후기금은 2019년 기준 796억 달러에 불과하다.

각국 정상들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벌목지원 중단 등도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中 광군제... 8억명 쇼핑 '소비회복 기대'

차이나 뉴스&리포트

1~3일 1차 진행, 11일 2차 본행사 열어 29만개 브랜드 참여 '역대최대 규모'

중국의 쇼핑 대축제인 광군제가 시작되면서 부진한 소비가 살아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팬데믹 이후 국내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떠오른 만큼 중국 정부 역시 민간 소비를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31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번 광군제 행사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1차로 진행하고, 당일인 11월 11에 2차 본 행사를 연다. 참여 브랜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개로 전년 기록을 뛰어넘었다.

앞서 알리바바, 징둥 등 대형 업체들은 본 행사를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예약판매에 들어갔다.

광군제는 중국에서 11월 11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광군(光棍)'은 중국어로 독신남이나 애인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데 '독신'을 의미하는 숫자 1이 네

번 겹치면서다. 알리바바가 지난 2009년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며 할인 판매를 시작한 것이 연례행사로 굳어졌고, 알리바바의 성공에 중국 대부분의 쇼핑몰이 동참하면서 광군제는 최대 쇼핑 축제가 됐다.

작년 광군제 기간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매출은 4982억안(한화 약 90조원 안팎)으로 전년 2684억위안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도 분위기는 좋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은



작년 광군제 온라인 쇼핑에서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의 매출이 4982억위안을 돌파하는 장면이 대형 화면에 담겼다. /신화·뉴스

사전판매 행사에서 1시간만에 290개의 브랜드가 작년 하루의 매출을 넘겼다고 밝혔다.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 행사에 약 8억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 광군제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중국의 소비와 경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어서다. 중국은 하반기 들어 험다사태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과 전력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중국 GDP 성장률은 1분기 18.3%, 2

분기 7.9%에서 3분기 4.9%로 크게 둔화됐다. 소매 판매 성장률은 역시 3월 34.2%에서 6월 12.1%로 떨어졌다.

소비는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축이기도 하다.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4.3%였으며, 올해 들어 3분기까지는 무려 64.8%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의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국가장기비전에서 소비자 지출 증대를 경제적 우선 순위로 보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내년 하반기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

>> 1면 'D램값 하락 현실화'서 계속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1a D램을 양산하며 EUV 적용 등 난제로 수율 문제를 겪을 것으로 우려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는 예상보다도 공정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또다시 '슈퍼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이번 다운사이클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필요한 데이터가 계속 늘

어는 만큼 메모리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최근 들어 메모리 사이클이 더 짧아졌고, 제조사들도 수요에 생산을 맞추는 분위기가 공급 과잉 현상도 나타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D램이 새로운 규격인 DDR5로 전환되면서 서버뿐 아니라 PC 등 시장에서 새로운 메모리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인텔이 드디어 12세대 CPU를 공개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